

“폭설=선물” ‘효리네2’, 운아도 홀린 겨울 제주의 매력



어찌 보면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이 처한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제주에 폭설이 내리고 그로 인해 '효리네'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고립되어버렸다. 첫 손

님으로 찾아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유도소녀들은 공황으로부터 날아온 고향 소식에 난감해 했다. '효리네'도 아침을 챙겨 먹으며 고립된 상황에 비추어놓는 식량 걱정을 했다.

드문드문 아침을 챙겨먹는 와중에도 눈은 그칠 줄 몰랐다. 그래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함에 들어갔다. 하지만 풍광 열아버려 볼조

이효리의 끈임없는 '즐거움 찾기' 시도 폭설 속 고립조차 하나의 판타지로 전해져

차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이상순과 임윤아는 그걸 녹여보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그래도 공황으로 가보기 위해 나선 유도소녀들은 미끄러운 언덕길을 차가 오르지 못해 결국 이상순이 직접 와 차를 몰고 소녀들이 뒤에서 밀어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때도 눈발이 조금 잠잠해지자 '효리네'에 고립된 손님들은 슬슬 주변을 둘러보기로 나섰지만 역시 여의치 않아 가까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집을 나선 이효리와 이상순 임윤아도 그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이효리의 한 마디 제안이 반전을 만들었다. 갑자기 눈썰매를 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모두가 기대감에 찬 언덕은 아이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언덕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은 힘들었지만, 거기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은 모두를 까르르 웃게 만들었다. 이상순은 이효리와 임윤아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

어쨌든 즐거운 눈썰매의 추억을 담아냈고, 이효리는 그 곳에서 만난 한 귀여운 아이와 함께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평을 하기 위해 '효리네'를 찾은 서퍼 청년들은 눈보라에 서평을 갈 수는 없었지만 대신 눈썰매를 서프보드처럼 타고 내려오는 멋진 장면을 보여줬다.

한바탕 눈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고 난 후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의 맛은 보는 이들조차 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집을 나선 이효리와 이상순 임윤아도 그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이효리의 한 마디 제안이 반전을 만들었다. 갑자기 눈썰매를 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모두가 기대감에 찬 언덕은 아이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언덕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은 힘들었지만, 거기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은 모두를 까르르 웃게 만들었다. 이상순은 이효리와 임윤아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

의 의미는 정반대 느낌으로 도시인들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어디를 가든 연결되어 버리는 '초연결사회'에서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픈 욕망이 하나의 판타지가 되기 마련이다. 최근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이 직접 시도하지 못하는 고립과 인생의 시간들을 대리경험 해줌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그래서다.

'효리네 민박' 겨울편은 뜻하지 않게 쏟아진 폭설로 인해 고립된 상황이지만, 의외로 그 고립조차 하나의 판타지로 전제했다. 외부와 단절된 그 곳에서 서로가 나누는 음식과 대화와 놀이가 더더욱 즐거운 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먼 곳까지 왔는데 폭설을 만난 손님들에게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이효리는 끊임없이 그 고립에서의 '즐거움 찾기'를 시도한다.

쏟아지는 눈발이 그냥 보면 '폭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걸 슬로우모션으로 포착하면 그림 같은 장면이 되는 것처럼, 고립의 상황에 그걸 즐기려는 노력의 필터를 끼워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 그렇게 이효리와 함께 하니 고립도 판타지가 된다.

KBS, 3개 예능 정규 출격 대기...지각변동 일으킬까



KBS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세 편을 동시에 선보여 화제다. KBS는 지난 추석 연휴 파일럿으로 방송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들을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단장해 새롭게 선보인다. '하룻밤만 재워줘', '건반 위의 하이에나', 그리고 '1%의 우정'이 그 주인공. 세 프로그램은 새로운 형식과 젊은 감각의 여형·음악·우정 예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예능 판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하룻밤만 재워줘

가장 먼저 찾아오는 프로그램은 추석특집 파일럿 중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하룻밤만 재워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진짜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담은 '하룻밤만 재워줘'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시청자들을 세계 가족들의 따뜻한 안방으로 초대한다. 놀라운

친화력을 선보였던 이상민X김종민에 이어 새롭게 합류한 멤버들은 누구일지, 어느 국가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정규편성 첫 방송으로 파일럿에서 하룻밤의 인연을 맺은 이탈리아 마르파 가족과의 '그 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 파일럿 방송을 감명 깊게 지켜봤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 건반 위의 하이에나

순도 100%의 리얼 음원차트 생존기 '건반 위의 하이에나'는 금요일 밤을 책임진다. 음악방송의 중심을 이끌어온 KBS의 새로운 음악예능 '건반 위의 하이에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 시청자들을 스타 뮤지션들의 은밀한 작업실로 안내한다. 예능과 음악성을 고루 겸비한 최고의 MC 정형돈X정제형X슬리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의 영업 비밀이 담긴 음원 제작 과정을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지, 또 이번에는 어떤 곡이 새롭게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할지 등 '건반 위의 하이에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파일럿 방송 직후 음원차트 1위에 오른 '비트마스터' 그레이와 파이팅 넘치는 삼인조 리드파워, 2017년 전체 음원 순위 1위의 에일리과 차트 위의 망부석이라 불리는 멜로망스 정동환 등 개성 넘치는 첫 출연자들이 공개되며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1%의 우정

토요일 밤은 서로 삼반된 두 사람이 만나 우정을 쌓는 '1%의 우정'이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3월 3일 밤 10시 45분에 첫 방송 되는 '1%의 우정' (연출 손자연)은 99%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1%의 우정을 만드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파일럿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규 편성 응원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MC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파일럿에서 패션 코디 커풀이라는 평가를 받은 40대 아재 이정환과 거친 상남자 배정남이 다시 한 번 만나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사고를 모두 추적하는 기자 주진우와 어두운 곳은 클럽 밖에 모른다는 예능 천재 김희철의 삼반된 조합이 만나 1%는커녕 0.1%의 우정이라도 만들 수 있을지 궁금증을 한껏 높이고 있다.

KBS 예능국 하원 국장은 "이번에 시작하는 세 개의 프로그램이 KBS의 울드한 이미지를 바꿔 줄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한해 KBS 예능국은 계속해서 참신한 포맷의 기획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새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KBS가 아낌차게 준비한 세 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지, 이번 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토요일 밤 KBS 2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워너원, 3월19일 컴백 확정...‘0+1=1’ 티저 공개



그들 워너원(Wanna One)이 오는 3월 19일 컴백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워너원은 28일 오후 1시 1분, 워너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0+1=1(PROMISE YOU)'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다.

2018 Wanna One Golden Age를 알리며 시작되는 이번 티저 영상은 워너원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반지를 형상화한 골드 '0'과 멤버들의 감지 손가락으로 만든 '1'을 통해 앨범명인 0+1=1(PROMISE YOU)를 소개하며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3월 19일 컴

는 새 앨범의 예약판매 소식을 전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앨범은 앞으로 워너원이 맞이할 따뜻한 '황금기'를 의미하는 'Day' 버전과 더욱 화려하게 빛날 워너원의 '황금기'를 의미한 'Night'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버전별 포토북과 함께 랜덤으로 수록되는 황금비율의 11종 포토카드에는 워너원에 전하는 워너원 멤버들의 약속이 자필로 담겨있으며, 반지를 형상화 한 원형의 금빛 미러카드는 황금기를 맞이한 워너원의 약속을 담고 있어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워너원은 지난해 8월 발매한 데뷔 앨범 '1x1=(To Be One)'과 프리릴 리패키지 '1-1=0(Nothing Without You)'으로 1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 데뷔 4개월만에 빌리보드에 달성할 것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는 등 폭발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어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갈 워너원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워너원은 다음달 19일 컴백을 앞두고 앨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음력 1월 12일)

<p>▶ 쥐띠 丁, 巳, 未 성씨 사별자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다. 서쪽 2, 5, 11월생이면 평생 동반자로 좋을 듯. 자녀들도 동의하겠다. 목재, 철재, 여항 사업 불경기는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년을 향해 다시 한번 발판을 밟으라.</p>	<p>▶ 용띠 미혼자 1, 6, 7월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떨지. 오늘 오후 만나는 것도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좋다. 丁, 未, 未 성씨 동쪽에 있는 사업 이익을 보기에 시기가 좋다. 쥐, 범띠는 잊어버리라. 매매 계약은 금물.</p>	<p>▶ 원숭이띠 시비 수에 걸리지 말고 언행을 가법히 조심하라. 丁, 未, 未 성씨 사업도, 가정도 물에 잠길 수. 나무나 분재를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을 듯. 3, 5, 9월생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쥐, 용, 돼지띠를 새로운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p>
<p>▶ 돼지띠 사랑이 식어가니 마음 또한 담담하구나. 6, 7, 9, 12월생 동쪽에 있는 임은 내 짝이 아니다. 丁, 未, 未 성씨 지금까지의 방향은 새로운 사업의 초기 단계라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승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라.</p>	<p>▶ 닭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자신의 인격도 실추됨을 알라. 2, 7, 8월생 믿는 사람에게도 비밀은 가끔씩 지키는 것이 좋을 듯. 지나친 언행은 불화를 일으킬 지름길이다. 未, 未, 未 성씨 부부 함께 새로운 기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떨지.</p>	<p>▶ 양띠 미혼자 3, 5, 7월생 동료로 인해 새로운 이를 만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맘도 떨리니 내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丁, 未, 未 성씨 동쪽에서 오는 연락 만나지 말고, 서쪽에서 오는 손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나는 것이 사업과 가정에 좋은 인연이 된다.</p>
<p>▶ 호랑이띠 5, 7, 8월생, 와이프에게 최대 선물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다. 직장의 불안족스러운 기분을 잡까지 이어가면 어두운 분위기를 변화하지 못할 듯. 丁, 未, 未 성씨 뱀, 원숭이, 돼지띠가 도움을 주면 종용이란 사랑의 재화인이 필요하겠다.</p>	<p>▶ 말띠 5, 9, 12월생 도와주고도 원망만 듣는 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화를 막는 방법이다. 丁, 未, 未 성씨 일은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힘들음 참고 이겨내는 자만 성공할 수 있음을 알고, 생활의 보람이라 여기며 자신을 위로하라.</p>	<p>▶ 개띠 丁, 未, 未 성씨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찾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3, 7, 8월생 인생의 평화는 고통 속에서 얻을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선물하는 것이 아내의 화를 푸는 길이다. 행운의 색은 갈색.</p>
<p>▶ 토끼띠 당신의 마음을 주변이 알고 있으나 그 마음 이용하려는 자 또한 남칠 정도로 많으니 주관을 행하라. 丁, 未, 未 성씨, 노력 끝에 광명 찾는다. 오후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니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p>	<p>▶ 양띠 공직자는 검은 손을 내쳐야 할 시기다. 3, 4, 7, 11월생 꼬리는 잡히기 마련이다. 공익사업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丁, 未, 未 성씨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으면 체한다. 적당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정의로서 배척하는 것이 좋겠다.</p>	<p>▶ 돼지띠 4, 5, 11월생 사랑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실연을 당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 승진이나 직업 변동 수 있으니 한층 분발해야 한다. 여성은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걱정해야 할 사람이 많겠다.</p>